

#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14일 문 연다

**안정적 정착 위한 컨트롤타워 역할  
광주시, 광주노동청 등과 협업 운영  
통번역·노동상담 등 원스톱 서비스  
“특광역시 최초 외국인주민과 신설”**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의 안정적 지역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는 14일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의 문을 열고,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

8일 광주시에 따르면 광주외국인주민

지원센터는 지난 1월 공모 선정된 고용노동부 국고보조사업 ‘외국인근로자 지역정착지원사업’과 연계해 매년 국비 2억원과 지방비 3억원을 투입해 외국인주민 지원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외국인주민 밀집지역인 광산구 하남산단 인근에 있는 구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시설을 활용해 △통·번역 △채류·노동상담 △한국어교육 △국가별커뮤니티 지원 등 외국인주민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협업해 기관·단체별로 제공하던 서비스를 일원화해 원스톱(One-Stop)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존 광주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가 외국인근로자 지원에 그쳤던 것을 넘어 유학생, 결혼이민자, 외국국적 동포 등 외국인주민 전체를 아우르는 통합 서비스를 할 계획이다.

센터 운영은 지난 3월 공모를 통해 선정된 광주국제교류센터가 오는 2026년까지 맡는다. 지난 1999년 설립된 광주국제교

류센터는 외국인주민지원사업, 내·외국인 문화교류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광주시는 경력이 풍부한 전문인력을 투입해 센터 운영의 전문성을 높이고 민관 네트워크를 활용한 체류자격별 맞춤형 지원, 내외국인 커뮤니티 활성화 등을 통해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의 진정한 구성원이 되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오영걸 여성가족국장은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에 원활하게 적응하도록 돕겠다”며 “선주민과 이주민이 함께하는 다양한 문화교류프로그램을 통해 사회통합기

반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시는 외국인주민정책 확대를 위해 지난해 7월 특광역시 최초로 전담부서인 ‘외국인주민과’를 신설하고, 지자체 차원의 외국인주민정책 중장기로드맵을 마련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중이다. 광주시는 민선8기 외국인주민정책의 핵심사업인 광주외국인주민지원센터 운영을 시작하면서 명실상부 ‘포용도시 광주’의 입지를 확고히 하게 됐다.

노병하 기자 byeongha.no@jnilbo.com



강기정 광주시장이 8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네마나 그르비치 주한 세르비아 대사를 만나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시와 자매결연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 제공**

## 광주시-세르비아, 문화·산업 도시교류 논의

**강 시장, 그르비치 대사 접견  
세르비아, 첫 자매도시 희망**

1989년 한국과 수교를 시작한 세르비아가 대한민국 첫 번째 자매도시로 ‘광주’를 희망했다.

8일 강기정 광주시장은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네마나 그르비치 주한세르비아대사를 만나 한-세르비아 관계 및 광주와 세르비아 크라구예바츠 간 교류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만남은 주한세르비아대사관 측에서 양 도시의 결연을 제안하기 위해 요청했으며, 접견에서 크라구예바츠시의 역사·문화·산업적 측면에 대해 상세히 소개하고 광주시와 교류를 희망했다.

강 시장은 “광주에 대해 미리 알아보고 자매결연 의지를 가지고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며 환영의 인사를 건넸다.

강 시장은 이어 “세르비아는 유럽과 아시아가 이어지는 지정학적 요충지에 위치한 나라이고, 크라구예바츠시는 세르비아 현대의 첫 수도로 역사·문화·산업의 중심지인 점이 인상깊다”며 “특히 국가데이터 센터가 위치해 있는 등 미래 산업의 방향성도 광주와 일치해 공감대가 크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그동안 우리 시는 유럽과의 교류 확대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왔고 오늘 그르비치 대사와 만남도 교류확장에 큰 힘이 될 것이다”며 “실무진을 중심으로 광주와 세르비아 도시 교류의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에 네마나 그르비치 대사는 “대한민국 민주주의 도시 광주에 꼭 방문하고 싶었다”며 “대한민국-세르비아 수교 35주년 만에 안정적인 양국 도시교류의 기회를 만들어 보고자 첫 번째 자매결연도시로 광주를 생각하고 왔다”고 밝혔다.

그르비치 대사는 “자동차 제조 도시이자 문화·역사의 중심도시 크라구예바츠와 광주는 깊은 협력이 가능할 것이다”며 “한-세르비아 관계 강화를 위해 소통의 다리를 놓고, 지원과 도움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강 시장은 문화예술의 도시 광주를 알리기 위해 그르비치 대사를 오는 9월 7일 열리는 제15회 광주비엔날레에 공식 초청했다.

한편, 크라구예바츠는 세르비아 4대 도시로, 세르비아 서부의 행정·경제·교육의 중심지이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 히틀러의 반나치주의자 탄압으로 2700여명의 남성이 학살된 곳으로 이를 추모하기 위한 공원과 박물관이 설치돼 있다. 또 ‘붉은 악마’라는 별명을 가진 세르비아 수페르리가 소속의 ‘FK 라드니치키 1923’ 축구클럽의 연고지이기도 하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1167명 만기 지급

**3년간 월 10만원... 720만원 수급  
이달 중 신규대상자 1500명 모집**

전남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이 지역 청년들의 자립과 미래 설계에 대한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8일 전남도는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자 1167명에게 만기적립금 83억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청년 희망디딤돌 통장은 지자체와 청년이 공동으로 매월 일정 금액을 3년간 적립하면 만기 시 청년이 저축한 금액의 두 배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청년 지원 정책 중 하나다. 청년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에 혜택을 받은 청년은 2021년 4월

가입자로, 지난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적립한 금액 360만원에 전남도와 시·군의 적립금 360만원을 더해 저축액의 두 배인 720만원과 이자가 추가로 지급됐다.

전남도가 희망디딤돌 통장 가입 청년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만기 적립금 활용 계획으로 △주거비(738명) △취·창업자금(246명) △결혼자금(137명) △학자금 대출 상환(46명) 등이 꼽혔다.

지난 2017년 청년 행복시책으로 시작한 청년 희망디딤돌 사업은 현재까지 6073명의 선정 청년 중 타 시·도 진출자들을 제외한 3399명이 만기 적립금 247억여원을 수령, 자산 형성에 도움을 받았다. 전남도는 이달 신규 대상자 1500여명을 모집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곽지혜 기자**

## 광주 인공지능사관학교에 전국 청년들 ‘복석’

인공지능 인재양성의 핵심 ‘인공지능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모집에 전국에서 712명이 지원해 인공지능에 대한 청년층의 뜨거운 관심이 입증됐다.

8일 광주시는 인공지능 사관학교 제5기 교육생 330명 모집에 광주지역 491명, 수도권 105명, 그 외 지역 116명 등 전국에서 총 712명이 지원해 2.2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밝혔다.

인공지능 사관학교는 광주시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인공지능산업융합사업단이 지원하는 전문

인력 양성기관이다.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 등 인공지능 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광주에서 인공지능 현장 실무역량을 쌓을 수 있고, 생생한 인공지능 등 최신 인공지능 기술 동향에 맞춘 체계적인 교육을 전액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또 높은 취·창업률(3기 수료생 71.1%) 등이 인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1차 서류심사와 온라인 기초·심화과정 이수(320시간), 역량테스트, 심층 인터뷰 등 단계별 선발 절차를 거쳐 5월초 330명을 최종 선발한다. **노병하 기자**

## 광주시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개발·공급

**강 시장, 광주도시공사 현장대화  
“실수요자 중심 공공주택 공급”**

광주시가 시민 수요를 반영해 공동육아 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을 갖춘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사업’을 추진한다.

8일 광주시와 광주도시공사는 도시공사 휴마루에서 ‘공공기관 현장대화’를 진행했다. 공공기관 현장대화는 ‘시-공공기관 동행 전략’ 중 하나로 전문성을 갖춘 시장 파트너인 공공기관과 광주시가 상호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시민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시민 행복과 공공서비스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대화에는 강기정 시장을 비롯해 정민근 광주도시공사 사장과 직원 70여 명이 참석했다.

현장대화에서 강 시장과 도시공사 직원들은 협업사업인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 모델 개발·공급사업에 대한 논의와 △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미래차 국가산단 사업화 방안 수립 등 다양한 사업 방향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광주도시공사는 광주시와 협업사업으로 시민 수요에 맞춘 다양한 형태의 공공주택 중 하나인 ‘육아중심 특화형 사회주택’을 선보인다.

완공 후 입주자를 선정하는 기존 임대주택과 달리 사회주택은 입주자들이 협동조합을 구성해 계획·시공 단계부터 주도적으로 참여한다. 육아중심 사회주택은 10~12세대의 개별 주거공간과 육아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공동육아시설, 커뮤니티 공간 등 공동시설을 갖춘다. 오는 2027년 입주를 목표로 추진한다.

광주도시공사는 또 광주연구개발특구 첨단3지구 개발사업을 비롯해 미래차국가산업단지, 에너지밸리 일반산업단지, 어등산관광단지, 의료특화산업단지 조성사업 등 굵직굵직한 도시개발사업을 맡아

지역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산업기반을 다진다.

어등산에 신세계 복합쇼핑몰(그랜드스타필드 광주)을 포함한 휴양레저의 체류형 관광단지 마스터플랜을 수립해 ‘골렘도시 광주’ 조성에도 앞장선다.

아울러 주거복지사업으로 에너지밸리 ‘누구나 집’ 건립사업 등 공공주택을 지속 공급하며, 광주종합주거복지센터를 거점으로 자립준비청년·탈시설장애인 등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다양화할 계획이다.

강 시장은 “도시공사는 시민들이 ‘집 걱정’을 덜어 주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해야 한다”며 “올해는 시와 도시공사가 육아 중심의 특화형 사회주택 사업을 새롭게 시작하는 만큼 앞으로도 다양한 삶의 형태를 반영한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노병하 기자

## 전남도, 전국소년체전·장애학생체전 ‘붙임’

전남도가 오는 5월 제53회 전국소년체전과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전을 앞두고 대회 분위기를 높이고 국민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다각적인 홍보에 나섰다.

전국소년체전과 전국장애학생체전은 전국 청소년선수가 각자의 기량을 뽐내고 서로의 우정을 나누는 스포츠 대축제로,

올해는 2만 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할 예정이다. 지난해 제104회 전국체전, 제43회 전국장애인체전을 치르면서 역대급 체전이라는 호평을 이끌어 낸 경험을 토대로 소년·장애학생체전도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단계별 홍보계획을 수립해 체계적으로 추진 중이다.

지역 관문인 목포역 광장에는 체전 카운트다운 시계탑을 설치했고, 체전에 대한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도록 누리집도 구축했다. 포스터도 전국에 배포했다.

또 전국 규모 대회인 만큼 수도권 요충지인 광화문광장과 용산역, 수서역, 강남고속버스터미널 등 다중접합시설 대형 전광판을 이용한 홍보와 전국 순회 고속버스 양 측면에 체전 홍보 이미지를 랩핑했다. **곽지혜 기자**